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 '나온다'

“다언어(多言語) 불교용례 전자사전은 산스크리트어(범어)·티벳어·팔리어·한글·한문 등으로 쓰여진 논(論), 소(疏)와 경전 등의 총체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또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으로 각 언어의 번역어를 제공하고 해당 낱말이 사용되는 용례도 열람할 수 있게 불교문헌에 사용된 언어의 ‘백과사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교수(종교철학·59)가 세계 최초의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이하 전자사전)에 수록된 불교문헌 입력을 마무리하고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에 입력된 불교문헌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1차 교정본으로, 동일한 문헌에 대한 번역본 간의 대조·검증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입력된 문헌자료에 새롭게 첨삭될 때 최종적인 교정본

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어 이교수의 전자사전 출간 작업은 불교학계를 발전시킬 획기적인 불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입력된 불교문헌은 총 50여가바이트(1메가바이트=1백만바이트)로 영문자 5천만자(字)에 해당하는 분량. 여기에는 <구사론> <중론> <중변분별론> <대승장엄경론> <유식삼

에 착안해 ‘산스크리트어사전과 인도 고전 번역계획’을 세우고 다언어 불교사전의 형식을 띤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을 만들기 위해 불교문헌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교수는 “드 옴의 제언”은 획기적이었지만,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로서는 꿈이었을 뿐이었다며 “내년 초 전자사전이 출간되면 산스크리트어 뿐만 아니라, 티벳



이와같이 하나의 문헌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서술된 자료 등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이들 자료 중에서 동일한 곳을 찾아 링크(상호 연결)를 해줄 때 산스크리트어와 번역어간의 연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해당 단어가 경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용례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어서오세요 정토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스대학의 불교 동아리에서 개설한 ‘어서오세요 정토(淨土)입니다’는 불교 초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불교란 △불교뉴스레터 △채식요리법 △명상법 △북미 불교단체 △고승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한다. ‘불교란’에서는 일심·삼귀의·삼학 등 기초 교리를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다. 또 ‘교양불교어휘’도 정리해 놓았다. ‘불교뉴스레터’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티벳불교와 재가불자들의 소식지인 <스틸 포인트> <정남> <가스> 등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승’에는 달라이 라마(티벳) 아잔 차(태국) 틱낫한(베트남) 조셉 골드스타인(미국) 등의 각국의 유명한 고승들의 프로필과 활동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20여가지의 채식 요리법도 소개하고 있으며 선(禪), 공안, 한국·네팔·싱가폴·대만불교 등의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불교유즈넷그룹과의 연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http://www.courses.cs.uiuc.edu/~j-zhao/buddhism.html>

“禪은 심층심리학이다”

이광준박사 주장... 정신분석학보다 우위

일반을 증득하여 개인과 우주의 일체를 깨닫게 하는 선(禪)이 개인의 사회 적응만을 지향하는 정신분석학보다 한 단계 높은 ‘심층심리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이광준박사(동서심리학 연구소장)가 8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선사상의 종교심리학적 연구’에서 제기한 것. 이박사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다름, 오해, 갈등 등 심리적 장애에 단련하는 환자에게 무의식적 동기를 알게 해 장애를 소멸시키는 데 반해 공안을 참구하는 선(禪)은 자신에게 걸려 있는 집착과 탐욕

등을 제거하고 잠재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선수행이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장애는 무지(無知)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한 이광준박사는 “선은 미망을 경계하고 자신의 본성을 통찰해 인간이 정신적 장애를 넘어 자유를 증득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준 박사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 지공스님(?~1363)의 선사상을 무심돈오(無心頓悟) 사상으로 새롭게 해석한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는 “지공스님은 고(苦)와 업(業)의 근원이 되는 번뇌는 자성 밖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무심(無心)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가 저절로 없어지고 깨달음(頓悟)의 세계에 단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며 무심돈오 사상을 설명했다. 역대조사의 전법계승을 소개한 <불조전심서천종파지요·佛祖傳心 西天宗師指要>에서 지공스님이 스스로 유파개종(遊法開宗)이라며 법계를 달라고 지공무상종(指空無相宗)이라고 명명한 것에 주목한 신교수는 “지공스님의 무심돈오 사상은 사람분별을 철저히 거부하는 남존신의 입장을 잘 대변했고, 나옹스님에게 온전히 전수돼 조선시대 선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회암사 1254년 이전 창건됐다”

김철웅씨 ‘보한집’ 등 자료 제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한 고려말에 창건된 대암사 회암사(檜巖寺). 우리 불교사의 중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회암사의 창건과 사지(寺址)의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만,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견해가 없었다. 김철웅씨(고려대 사학과 박사과정)는 <사학지(史學誌)> 제30호에 ‘고려말 회암사의 창건과 배경’을 소개하고 “1313년(충선왕 5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회암사는 이보다 앞선 1254년 이전에 창건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회암사 창건에 대해 언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보신회암사수조기’에서 회암사에 원경국사의 필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글씨를 본 금나라 사신의 일화

가 소개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같은 내용은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서도 언급된다”며 “<보한집>의 초간본이 최항(崔沆)에 의해 고종 41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회암사 창건 시기는 이보다 앞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나옹스님이 회암사를 중심으로 불교 중흥을 도모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새로운 선종이 일어났을 때”라고 지적한 김철웅씨는 “나옹스님은 지공·평산(平山) 스님들에게 일제강점기를 전수 받았다”며 “현재 조계종이 중흥을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그 중흥조는 나옹스님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종교계 제일주의 버려야”

김복자교수 주장

기독교를 비롯해 불교 천도교 증산교 등 우리나라의 종교 대부분이 ‘한국종교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복자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42)는 7일 제23회 한국·아메리카 회의에서 발표한 ‘세계 구원의 길, 기독교와 불교’에서 “국내 기독교와 불교”에서 “국내 기독교는 21세기에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세계기독교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가장 많은 교인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교·천도교·증산교 신도들도 자신의 종교가 세계 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등 ‘제일주의’ 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복자교수는 “한국 종교계가 다른 나라의 종교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종교로 인식할 때 세계평화와 인류의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스리랑카의 싱할라와 타밀간의 유혈 충돌은 종교분쟁이 아닌 종족분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송위지교수(외국어대 철학과)는 <국제지역연구>(외국어대 刊)에 게재한 ‘싱가포르 불교국가에서의 종족갈등에 관한 연구-스리랑카’에서 “타밀의 지도자는 가톨릭 교도이며 싱할라의 대표 구마라등가 대통령은 개신교도”라며 “최근 스리랑카 유혈 사태를 종족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학자들

“스리랑카 유혈사태는 종족갈등”

송위지교수 주장 “종교분쟁 시각 편견이다”

이 만들어낸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19세기 영국의 신민지로 전락한 스리랑카가 반영국 투쟁을 전개하자 영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1893년 타밀족 이주를 실시해 종족문제의 불씨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 스리랑카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인 아나기리까 다르마팔라(1864~1933)가 전국민적인

반영국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싱할라족을 ‘불교도’라고 통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도’라는 말은 타밀을 지칭한 것이 아닌 식민 통치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송교수는 “두 종족간의 유혈분쟁에서 ‘사원공격’과 같이 종교권 수호를 위한 갈등의 흔적은 찾

“美文화도 이제 불교영향권”

미국 뉴욕시 한 복판에서 영주가 인기리에 판매되는 등 불교문화가 매개로 한 ‘팬시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맨하탄의 대표적인 부티컬인 ‘비즈니스뉴욕’ 보석매장에서 크리스탈 수제품 백판염주를 고가에 팔고 있다. 의류 및 화장품 유명 브랜드인 ‘갭(Gap)’은 약초와 꽃을 혼합해 만든 새로운 화장수를 ‘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엔 TV토코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불교신봉자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와 특별대담 시간을 가져 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비도 있다.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은 이같은 최근의 현상을 ‘Influence(영향)’와 ‘Asian(아시아)’의 합성어인 ‘인플라시안(Inflasian)’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문화가 이미 미국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얘기도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口)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매거진> 동광 안내 *

- 매일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일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영버스터미널 옆)
-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시오. (02) 587-6613

김현준(金鉉竣)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황간 <법공양> 발행인

불교신행연구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앙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지비권능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